

'이재난고' 일부 고창으로 돌아온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재 황윤석 모든 지식 담아... 조선시대 일기류 중 최대·최다 방대한 저작물

조선 후기 실학자 이재 황윤석(1729~1791)이 평생에 걸쳐 보고 들은 모든 지식을 기록한 백과사전 '이재난고' 일부가 황윤석의 고향인 고창군으로 돌아온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재 황윤석의 8대 증손인 황병무씨가 '이재난고'와 '이재유고' 목판 100점을 최근 고창군에 기탁·기증했고, 이에 감사와 그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30일 기탁·기증 행사를 연다.

'이재난고'는 대실학자 이재 황윤석이 열 살 때부터 세상을 뜨기 이틀 전까지 53년 동안 온갖 다양한 정보들을 상세히 기록한 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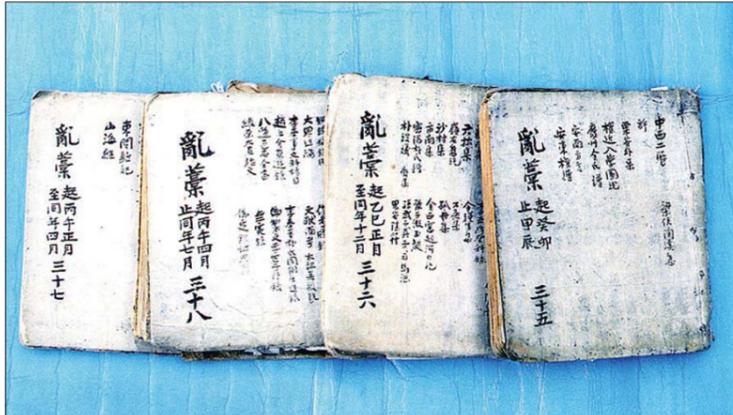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111호인 '이재난고'는 50여 책, 6,000장 정도의 내용으로 현존하는 조선시대 일기류 중 최대·최다의 방대한 저작물이며, 책마다 쓰기 시작한 연대와 끝낸 연대를 기록하고 '난고(亂藁)' 또는 '이재난고'라는 표제를 달았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재난고'는 애초 60책으로 이루어졌으며 거기에 이재의 수고본 2책을 더해 62책인데, 이 가운데 47책의 일기를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활자화해 '이재난고' 9책으로 발간해 오늘날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 일기만도 400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양인데, 62책 전체는 약 530만 자 정도 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재난고'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황윤석이 보고 배우며 생각한 모든 것을 매일 기록하고 그의 연구 결과까지 정리하면서 조선 후기 '과학자의 연구 노트'라고도 할 수 있다. 그는 정치, 경제, 과학, 역사, 사회, 문화, 언어 등 전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모두 '이재난고'에 담았다.

'이재난고'에는 일반 지식인이 살아가는 궤적이 매우 상세하게 담겨 있다. 심지어 당시 쌀 값이나 국밥이며 고기 따위의 물가 변동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다. 그는 여행하면서 마을 이름을 한자와 한글로 나란히 적어 놓았고, 식물, 광물, 기물 따위도 한자와 한글을 나란히 적어 썼다.

특히 그는 정음의 이언북이 60년에 구입한



이재난고(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11호).

자명종을 18세에 구경한 후 1761년(영조 37)에 나경적이 제작한 자명종을 직접 봤으며, 1774년(영조 50) 영영서를 통해 선금금 5냥을 주고 구입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창이 나서 황윤석은 이를 수리하려 노력했으나 실패하고 이후 수리비 4냥을 더 주고 고쳤다는 내용도 있다.

그는 과학에 대한 관심으로 자명종을 개발하려고 시도했고, 조선 후기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되는 많은 자명종을 소개하고 그 원리를 분석한 글을 남겨 놓았다.

또 강원도 춘천에 있던 선대 묘소를 이장할 때 이를 발굴보고서로 기록하고 고려 시대 묘제에 대한 분석까지 곁들였으니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발굴보고서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고창과 인근에 대한 정보는 대단히 많은데 난고에는 당시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당시 고창(흥덕)에서 서울까지 6박 7일 정도로 다녔던 노정(路程: 580리)과 여행일지, 경승지나 유적지 등을 돌아본 내용도 있다.

또 충청도 진천과 경상도 상주에서 호랑이로

인한 피해 상황과 호랑이 사냥 관련 현상금(큰놈 100냥, 중간놈 50냥, 작은놈 30냥)을 통해 하루 사이에 20여 마리를 잡았다는 내용과 1768년(영조 44) 7월에 과거시험을 본 날 점심으로 일행과 냉면을 시켜 먹은 내용, 주막 국밥값 3전, 고급 누비솜옷 4냥, 평민의 누비솜옷 2냥, 말 한 마리 40냥과 말을 대여할 경우 100리마다 1냥 7전, 전의현감 월급 15냥 등이 기록되어 있는 등 당시의 물가와 사회문제 등 조선 후기 생활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어 '조선시대 타임캡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난고'는 조선 후기의 정치, 경제, 사회에서부터 수학, 과학, 천문, 지리, 어학, 역법 및 신문물인 서양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을 백과사전(百科全書)처럼 망라하여 다른 일기와 차이가 크며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고창군은 향후 '이재난고'의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승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중앙과학관)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도민의 노래 제정 작사부문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 5월 24일까지 이메일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전 북도와 공동으로 '전북도민의 노래 제정 공모 [작사부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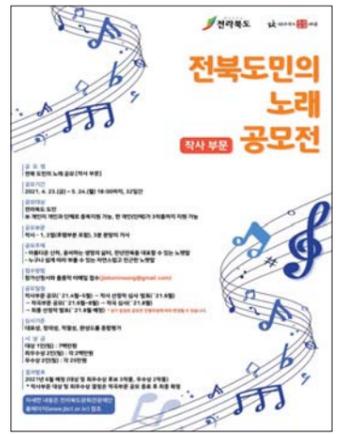
'전북도민의 노래 제정 공모 [작사부문]'은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도정 발전과 미래 비전을 담아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도민의 노래를 제정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은 5월 24일까지 진행된다.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출품작과 함께 이메일(jbdmirsong@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대상은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단체)이 3작품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작사 부문과 작곡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작사부문 공모를 진행하고 심사를 통해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후 우수상 2개를 제외한 3개의 작사 선정작을 바탕으로 작곡부문 공모를 진행, 최종 선정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시상금은 작사·작곡 부문별 대상 1인(팀) 700만원, 최우수상 2인(팀) 각 200



만원, 우수상 2인(팀) 각 25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문예진흥 팀(063-230-7435)에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군산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1인당 50만원... 5월 3~14일 신청

군산시는 군산형 재난지원금 펀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에게 1인당 50만원씩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군산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 직장보험가입자(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다.

제출서류는 ▲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여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군산시 문화예술과(063-454-3281~3) 및 군산예총 사무실(063-462-1234)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작활동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원광대 박물관, 개관 50주년 기념 도록 발간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박물관이 소장 유물 가운데 100건을 엄선하여 개관 50주년 기념 도록 '지나온 50년, 다가올 50년'을 발간했다.

소장유물이 12만3,437점에 달하는 원광대 박물관은 유물 종류가 다양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자료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불교미술·무속·금석문·자수·도자기·목가구는 익산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박물관 중에서도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도록 '지나온 50년, 다가올 50년'은 '선사·

백제', '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 도자', '생활민속·옹기', '불교·무속미술', '서화', '기증 작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곡사명 감로왕도(보물 제1990호), 건륭15년명 감로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85호), 고종황제 여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20호), 불제 박상 초상(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75호), 사암 박순 초상(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76호) 등 중요 유물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한편, 원광대 박물관은 익산시 지원을 받아

국립익산박물관, 왕궁리유적전시관, 마한박물관, 입점리고분전시관과 연합해 '익산이 품은 박물관 명품산책'도 함께 발간했으며, 50주년 도록은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 국내외 관련 단체 및 연구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도서관 4층에 전시실을 갖춰 소장유물 2백 37점으로 시작한 원광대 박물관은 이후 수차례 증설 및 신축을 거쳐 87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독립건물을 완공했으며, 2층에 선사, 백제실, 통일신라·고려도자실, 조선도자실, 3층은 민속실 1.2 및 무속실, 4층에 불교미술실, 서화실, 한수실 등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익산=정영원 기자

국립태권도박물관, 무주지역 문화기반 시설 협의체 발족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장용갑) 국립태권도박물관(관장 서봉준)은 지역사 연구 및 문화 관련 협력사업 발굴 등의 구상점 역할을 하기 위해 무주군 및 무주문화원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김화태문화관·최북 미술관 세미나실에서는 국립태권도박물관 서봉준 관장과 무주군 시설사업소 권태영 소장, 무주 문화원 맹갑상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지역 문화기반 시설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향후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주요 유물 및 전시품 교

류 등을 갖기로 하는 등 군민들의 문화 체험 기회 확대 및 공동 연구와 교육 등 지역 문화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호발전적 방향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서봉준 국립태권도박물관 관장은 "최근 한풍루가 보물로 지정 예고되었고, 무주지역 문화기반 시설 협의체가 발족하는 등 무주 문화계 발전에 있어 기쁨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무주군의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기획하는데 있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